

# 江戸 초기의 일본 성문화 형성 요인

鄭美惠\*

## 目次

1. 서론
2. 본론
  - 2.1 종교적인 요인
  - 2.2 혼인제도적인 요인
  - 2.3 민속적인 요인
3. 결론

## 1. 서론

江戸 초기에 幕府는 풍기상의 이유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각 지방의 시내에 흩어져 있는 사창을 한 곳에 모아 지방마다 각각 공인된 유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내 도처에 있던 사창은 유리로 편입되었고 일체의 매춘은 공인된 유리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에 공인 받은 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私娼인 集娼과 散娼이 발생하여 번성하였고, 江戸에서는 집을 나와 몇 걸음만 걸어도 사창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集娼이란 주로 신사나 사찰 부근의 요릿집 또는 여관 등에서 관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유나(湯女), 미즈야(水茶屋)의 「요비다시」<sup>1)</sup>와 「후세다마」<sup>2)</sup>, 驛宿의 메시모리온나(飯盛女), 쓰보네미세(局見世)<sup>3)</sup>의 賣女, 도매상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하여 둔 하스온나(蓮葉女) 등이 있었다. 散娼이란 가두에서 하는 호객 행위, 茶屋에서 몰래 남자를 피는 행위, 다리 아래나 선착장과 같은 곳을 거점으로 출몰하여 남자를 유인하는 등으로 개개인이 자유로이 행하였던 매춘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간진(權進) 비구니, 신사를 떠나 방랑하면서 무술을 해주고 그 때마다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무녀, 밤에 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영업을

\* 중부대학교 부교수, 일본학

1)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 대기소에서 불러온 賣女.

2) 茶屋에 기거시키면서 손님을 접대하게 한 賣女.

3)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칸막이로 나누어 옆 칸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최하급의 사창.

한 요타카(夜鷹), 해안촌 부녀의 매춘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러한 매춘 행위뿐만이 아니라 도시에는 오늘날의 러브 호텔과 같은 데아이자야(出會い茶屋)가 들어섰으며, 일반인들의 성행위 보조 기구의 사용도 활발했던 것 같다. 예컨대 京都를 실제로 보고 기록한 기행문인 寛永年間(1624-1643)에 간행된 『미타쿄모노가타리(見た京物語)』에는 곳곳의 방물 가게에서 성행위 보조 기구를 가게 정면에 내놓고 팔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元祿 8년(1695)에 간행된 『고쇼쿠타비마쿠라(好色旅枕)』에는 여러 가지 성행위 보조 기구의 종류와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있어서도 이하라사이카쿠(井原西鶴)의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이하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로 약기)를 비롯한 우키요조시(浮世草子)가 크게 유행되었는데, 江戸 초기에 이처럼 성이 활발했던 요인을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종교, 혼인제도, 민속이라는 세 방면으로부터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본 론

### 2.1 종교적인 要因

종교가 일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으로 성에 대한 종교의 규제 유무가 그 민족의 성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본인이 性愛에 관하여 자유 활달했던 것은 종교의 탓이다. 유럽의 크리스티교 나라에서는 “간음하지 마라.”라는 엄격한 계율이 성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신자에게도 요구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작가가 性愛를 테마로 하는 작품을 쓰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영국의 로렌스가 『차타리 부인의 사랑』을 쓰거나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쓰거나 할 경우에 도덕이나 제도 등의 현실적인 사회 질서와 대결하기 전에 먼저 신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4)</sup>

라는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는 종교가 엄격하게 성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 고유의 민속 신앙이라 할 수 있는 神道の 경우 성에 관한 엄격한 계율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가르침도 없이 성에 대하여 그저 관대할 뿐이었다. 불교 또한 승려에게는 邪淫戒라든가 여인 禁制라든가 하는 계율이 있었지만 일반 신자인 국민 대중의 性愛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더구나 승려에 대한 계율도

4) 暉峻康隆 『日本人の性と愛』(岩波書店 1989), p. 2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平安시대 당나라 유학승에 의해 전파된 동자승과의 남색은 일부 사찰에서 만연하였고, 「홍법대사는 남색 신란 스님은 여색」이라는 센류(川柳)가 있을 정도로 사찰의 성질서가 문란하였다. 나아가 鎌倉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고기를 먹고 처를 거느린 肉食帶妻僧까지 등장하였다.

江戸 초기를 전후하여 선교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은 그 시대의 일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당시의 선교사인 루이스 푸로이스는,

만약 선교사들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규율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엄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수는 틀림없이 배로 늘어날 것인데,<sup>5)</sup>

라는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1534-1582)의 장남 노부타다(信忠)(1557-1582)의 말과,

만약 선교사들이 나에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허용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터인데<sup>6)</sup>

라는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1537-1598)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가 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찰이나 신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종교 행사가 민중에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자유스런 성풍속을 조장한 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원이나 신사에서 는 염불 수행을 위한 念仏講이나 불교 신자가 부처를 칭송하는 노래인 御詠歌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 이러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혼숙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을 자코네(雜魚寢)(이하 『자코네』라고 약기)라고 하며, 야마시로노쿠니(山城國) 오와라(大原)의 우부스나샤(産土社)의 拜殿에서 매년 節分 날 밤에 행하여진 자코네가 특히 유명했는데,

오와라(大原)의 자코네로 유명한 에부미(江文) 신사의 長床이나 하리마(播磨) 미노군 美囊郡 아와가와무라(淡河村)의 室町 시대의 불당 등은 가늘고 긴 건물로 아마도 마을 남녀 중에서 성교가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집합하여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室町 시대에는 이런 형태가 통상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神戸市の 하야시다(林田), 고마가바야시(駒が林)의 자코네도(雜魚寢堂)도 근세에는 유명했으며 자코네도(雜魚寢堂)라고 하는 것은 근세 농촌에는 거의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明治 후반 무렵부터 점점 없어졌지만 산촌 지대에는 남아 있었다.<sup>7)</sup>

라는 인용문을 보면, 江戸 초기에는 이러한 자코네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

5) 루이스 푸로이스, 『日本史』 松田毅一, 川崎桃太譯(中央公論社, 1977), p.27

6) 루이스 푸로이스, 앞의 책 p.124

7) 赤松啓介 『夜這いの民俗學』 (明石書店 1994), p.117

된다.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 3권 4장에도 자코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요노스케(世之介)가 동행인에게 속삭이기를 “참 오늘밤은 오와라(大原)에서 자코네가 열리는 날인데, 이 날은 마을 촌장의 부인, 처녀, 하녀 누구든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이 신사의 신전에 모여서 혼숙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밤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니 어디 가보지 않을래요” 라고 꼬드겼다. 일행은 어슴푸레한 清水 약수터를 지나고 험한 산과 소나무 숲을 지나 오와라(大原)에 도착하였다. 어둠 속에 주위를 살펴보니, 아직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도망 다니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 손목을 붙잡혀 싫다고 거절하는 여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수작을 거는 여자도 있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팀도 있는가 하면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서로 차지하려는 팀 등 실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일흔 살 먹은 할머니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여동생을 가로질러 주인마님에게 짓곳은 장난을 치는 하인, 나중에는 한테 영켜 울고 웃고 시시덕거리고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실로 장관이었다. 새벽녘에 한꺼번에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이 가지각색이었다.<sup>8)</sup>

또한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의 2권 3장에는,

히가시아마(東山)에 이어지는 오카사키(岡崎)라고 하는 곳에 묘쥬(妙壽)라고 하는 비구니가 草庵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암자는 북향의 음침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장지문에 바른 仮名으로 쓴 연에 편지의 수신인 부분이 모두 잘려나가 있는 것도 무슨 연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방 하나를 일부러 어둑어둑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더욱 수상했다. “여기는?” 이라고 친구에게 물어 본즉 이 암자는 京都에서도 알려진 매춘부 집이었다. “오가와도리(小川通)의 습습집 여공, 무로마치도리(室町通)의 포목전 행사너, 그밖에 흘치기집 여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곳으로 남자를 끌어들이는구나.” 라고 했다.<sup>9)</sup>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비구니가 암자를 매춘宿으로 이용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5권 4장에는 주인공 요노스케가 친구들과 함께 남창들을 여러 사람 료쥬센쇼호지(靈鷲山正法寺)로 불러서 밤이 새도록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일본에서는 종교가 성을 규제하기는 커녕 종교 행사나 암자나 사원 같은 종교 시설이 오히려 성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신사나 사원에서는 성과 관련되는 행사가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8) 暉峻康隆의 1인, 앞의 책 p.161

9) 暉俊康隆의 1인, 앞의 책 p.132

분고노쿠니(豊後國) 히타군(日田郡) 이쓰마시(五馬市)의 이쓰마히메(五馬媛)신사의 祭礼에 는 그 시장이 서는 동안에는 매일 밤 남녀가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마주치면 반드시 즉 시 交會한다. 처녀는 물론 유부녀라도 이 祭礼에 참가한 이상 이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녀의 부모나 여자의 남편도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부모나 남편도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중략) 분고(豊後)의 우스키쵸(臼杵町)의 근교에 있는 某村에서도 8월에 鎮守神의 祭礼가 행하여졌는데 이날 밤에는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村內의 부녀자는 반드시 3인의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약이 있었다. 그 때문에 젊고 예쁜 여자는 규약에서 정한 책임을 용이하게 다할 수 있었지만 나이든 처녀는 한 사람의 남자도 얻지 못한 채로 날이 샌다는 희극이 반복되었다고 한다.<sup>10)</sup>

그런데 이러한 성풍속 중에는 현대의 昭和期까지 존속되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의,

여자라는 여자는 모두 그날 밤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몸을 허락하는 것이다. 기혼의 여자뿐만이 아니라 미혼의 처녀까지 좋은 신량을 얻을 수 있다는 미신에서 가깝없이 그 몸을 미지의 남자 앞에 내던지는 것이다. 여자는 그 빈도수가 많을수록 한층 더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다.(중략) 東京에서 기차로 가면 한 시간 반 정도에 도달하는 가까운 곳에 더구나 昭和의 현대에 이러한 행사가 남아 있다니 민속의 영원성을 엿볼 수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이다.<sup>11)</sup>

라는 인용문은 이바라기켄(茨城縣) 기타소마군(北相馬郡) 문칸무라다이치타치키(文間村大字立木)의 고모(蛟蛸)신사의 祭礼에 관한 것으로 이곳의 성풍속은 昭和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하니 江戸 초기에는 이러한 성풍속이 일본 전국 대부분의 寺社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본 종교는 성에 대하여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스런 성의 성립을 조장한 면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江戸 초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성풍속에 관한 문제였다. 크리스트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교리 아래 부부간의 성교섭 이외에는 일체의 성교섭을 금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종교는 모두 성에 대하여 관대했기 때문이었다.

## 2.2 혼인 제도적인 要因

고대 일본의 혼인 제도는 부부가 한 집에서 동거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의 집을 방문해

10) 大和岩雄 『遊女と天皇』(白水社, 1993), pp.23-24

11) 大和岩雄, 앞의 책 p.22

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돌아가는 쓰마도이혼(妻問婚)이었다. 결혼에는 그 전단계로서 구혼 절차가 있는 법인데 고대 일본의 혼인 제도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요바후(よばふ)나 쓰마도후(つまどふ)였다. 이 절차에 의하여 배우자의 선택이 이루어졌으며 고대에는 이러한 구혼과 결혼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즉 남자가 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바후(구혼)하고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여 잠자리를 함께 하면 그 자리에서 결혼은 성립되었던 것이다. 남자가 여자의 집을 밤에 방문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침에 돌아오는 이러한 쓰마도이혼(妻問婚) 제도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부다처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후 쓰마도이혼(妻問婚)은 천황제가 성립된 7세기의 大化改新을 계기로 변모하여 남편이 처(제1부인)의 집에 가서 사는 婿取婚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인 쓰마도이혼(妻問婚)도 종전대로 행하여져 남편은 제2, 제3 이상의 복수의 처를 가질 수 있었다. 쓰마도이혼(妻問婚)제도는 부부라고 해도 실질적인 부부 상태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동안에만 계속되고 아침에 떠나보내면 연인 관계로 바뀌는 지극히 불안한 혼인 상태라고 생각된다. 남편이 발길을 끊으면 그것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었고 아내 역시 다른 연인을 맞아드린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혼 역시 간단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혼인 제도는 남녀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性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시대에는 불륜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즉 남의 처, 또는 남의 남편과 자서는 안 된다는 도덕도 법률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의 다음과 같은 노래들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자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주무시기에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萬葉集 卷13, 3277)

당신이 찾아 주지 않아 한숨을 쉬면서 혼자 쓸쓸히 자는 이 밤이 얼마나 길고 긴지 당신은 아십니까?(百人一首)

앞의 노래는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일반 서민 부인의 노래이고, 뒤의 노래는 平安 시대의 귀족인 가네이에(兼家)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옮겨가 찾아오지 않는 밤이 계속 되었을 때 이를 한탄하는 그의 부인의 노래이다. 이처럼 서민의 경우이건 귀족의 경우이건 모두 빈 방을 지키는 것을 호소할 뿐 현대 여성처럼 남편의 바람기를 힐책하거나 이혼을 염두에 두는 등의 감정은 조금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처한테 거절당했다고 해서 처의 부정을 힐책하거나 하지 않고 다만 독수공방을 한탄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가 슬픈 듯이 울고 있다. 이 서리가 내리는 추운 밤에 거적 위에 소매를 깔고 나  
흘로 자야 할까?(百人一首)

라는 노래는 鎌倉 초기의 攝政關白 후지와라노요시쓰네(藤原良経)(1169-1206)의 것인데,  
이와 같이 남자에게도 여자의 마음이 변해서 찾아오는 것을 거절당했거나 여자가 다른 남  
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이니 배신이니 힐책할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12세기 왕조 시대까지는 성애를 단속하는 도덕도 법률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平安 시대까지 귀족 사회에서는 밀통이라든가 간통이라든가 불륜이라는 단어도 개념도 없  
었다. 平安 중기의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 다음가는 『고센와카슈(後撰和歌集)』에,  
「12월 초하루 처가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라는 머리말에 “今はとてあき果  
てられし身なれども霧立つ人をえはや忘るる” 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 「霧立つ人」란 안개가  
질게 낀 것처럼 마음에 거리가 있는 사람의 뜻. 요컨대 나에게서 그녀를 붙잡아 둘 매력이  
없었던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자기 비판이 앞서서 그녀의 부실을 힐책할 계제가 못되  
었던 것이다. 가요이콘(通い婚)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애정뿐이기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해서 떠들면 떠들수록 체면만 깎이고 자  
기도 비참해지는 구조였다.<sup>12)</sup>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처용에 관한 설화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처용가는 신라 49대 헌강왕 때인 879년에 처용이 지은 향가인데 설화의  
내용은,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자기 아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疫神과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疫神은 처용이 자기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것에 탄  
복하여 앞으로는 처용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처용이 자기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것에 역신이 탄복하여 처용의 그림만 보  
아도 그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에는 남의 부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률이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9세기에 이와 같은  
도덕률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가요이콘(通い婚) 제도하에 있던 일본의 경우 성이  
얼마나 자유스러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3세기가 되어 장군이 군림하는 봉건제가 시작되자 남자의 집에 처를 맞이하는  
娶嫁婚이 행하여지고 그것이 일반화되게 되었다. 즉 무가의 관습이었던 娶嫁婚의 영향으  
로 귀족 사회에서도 娶嫁婚이 시행되게 된 것인데 이 娶嫁婚의 원형은 약탈혼이었다. 鎌  
倉 막부가 성립되기 이전의 무가 사회에서는 대개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속한 미녀를 약

12) 暉峻康隆, 앞의 책, pp.93-94

탈하여 처로 맞이하는 약탈혼이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강간과 다름없는 약탈혼은 막부가 치안 유지를 책임진 무가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鎌倉 막부는 치안 유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약탈 강간 간통 등의 무사들의 자의적인 행위를 금지시켰다.

예를 들어 室町 시대까지 무가의 법전으로 된 鎌倉 막부의 고세이바이시키모쿠(御成敗式目)는 貞永 원년(1232)에 제정된 것으로 죠에이시키모쿠(貞永式目)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他人の妻と密懷罪科の事」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불륜을 범죄로 정한 국법인데, 강간 화간을 불문하고 남의 부인과 성교섭을 한 무사는 所領의 절반을 몰수하고 姦婦쪽도 所領이 있으면 몰수하고 所領이 없는 남녀는 유배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불륜에 대한 형벌은 소위 벌금형이었는데 여기에는 娶嫁婚이 주류로 된 무가 정치 시대에 처는 집안과 남편에게 소속되는 것으로 간통은 소유권의 침해이자 지배 계급으로서의 체면 실추라는 인식이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室町 시대에는 불륜의 처와 상대방 남자를 발견하면 메가다키우치(妻敵討)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것을 막부가 공인하기에 이르렀다.<sup>13)</sup> 이와 같이 室町 막부가 공인한 무가의 메가다키우치(妻敵討)는 유교를 국민 도덕으로 채택하여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세습적인 신분 제도와 가족 제도를 정비하려는 徳川 막부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즉 明曆 원년(1655)의 에도마치쥬사다메(江戸町中定)에 “자기의 처의 불륜 현장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사에 한하는 것으로 칼을 차고 있지 않았던 町人의 경우에는 붙잡은 姦夫와 姦婦를 관청에 넘겨 처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니 무가에서도 이를 떠벌리지 않고 은밀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무사의 처사로 여겨졌다. 무사들은 주군을 모시고 산킨코타이(參勤交代)로 일년간 단신 부임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동안에 혼자 남은 처가 간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메가다키우치(妻敵討)를 하게 되면 부인의 간통 사실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무사가 중히 여기는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을 잘못 다스려 高 호코(御奉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현직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町人(町人) 사회에서는 무가가 강제하는 법률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서민은 서민의 지혜로 해결했는데 간통한 부인과 상대방 남자를 죽이지 않고 남자 측으로부터 목숨 값으로 위자료를 받고 해결했다. 「부인과 간통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남편이 다섯 냥 받았다.」라는 せん류(川柳)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鎌倉 시대 이후 불륜의 개념이 생기고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자유스런 성풍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한 번 확립된 풍속은 오래도록 어떤 형태로든 그 후의 일본 성풍속에

13) 室町 막부의 요직에 있던 山名 쪽의 가신이 처와 밀통한 赤松 쪽의 家人을 妻敵으로서 베어 죽인 사건을 막부가 정당하다고 인정.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고대 천황제 국가가 성립된 7세기의 大化改新에 의하여 법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공적인 결혼에 대하여 제약이 가해졌다. 우선 여자의 결혼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고, 천황제 국가는 戶를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 호주는 嫡男으로 하여 남성인 호주에게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의 결혼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족의 계통이 어머니 쪽에 의해서 이어지는 모계적 가족 제도를 부계적 가족 제도로 바꾸려고 했다. 또한 귀족 관료들은 중국으로부터 三從 七去의 도덕률을 받아들여 여성의 자유를 대폭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 지배자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법률이나 도덕을 채택했다고 해서 남녀 관계가 갑자기 고쳐지지는 않았고, 이 제도 후에 나온 『만요슈(万葉集)』의 노래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성생활은 변함없이 자유 분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혼인 제도도 이처럼 자유스런 성문화 생성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3 民俗的인 要因

본 장에서는 성풍속과 관계가 있는 일본 민속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우타가키(歌垣)는 東國 방언으로는 가가이(嬬歌)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고대 일본에 존재했던 일종의 성해방 축제라고 볼 수 있다. 봄과 가을에吉日을 택하여 특정한 산지나 들판이나 거리 등에 미혼 기혼의 많은 남녀가 모여 울타리처럼 둘러서서 밤을 지새우며 구혼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자유로운 성행위를 즐겼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명한 우타가키야마(歌垣山)는 히타치(常陸)의 쓰쿠바야마(築波山), 세쓰(攝津)의 우타가키야마(歌垣山), 히젠(肥前)의 기네시마다케(杵島岳) 등이다. 우타가키(歌垣)에 관한 노래는 『만요슈(万葉集)』 나 『니혼쇼키(日本書紀)』에 나타나고 있는데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사는 쓰쿠바야마(築波山)의 모하키츠(裳羽服津) 언덕 위에 젊은 남녀가 모여들어 서로 어울려 노는 우타가키(歌垣)에서 나도 남의 부인과 놀아야겠다. 나의 아내에게도 다른 남자가 놀러와 주었으면 한다. 이 산을 지배하는 신령님께서 예로부터 특별히 허락하신 행사. 멋쩍어도 눈감아 주려무나, 오늘날은 무엇을 한들.(卷9, 1759)

쓰바이치(海柘榴市)의 우타가키(歌垣)에서 만나 정을 통한 남자가 묶어준 속치마 끈을 지금은 다른 남자에게 구혼을 받아서 또 풀게 되었구나.(萬葉集 卷12, 2951)

등의 노래를 보면 우타가키(歌垣)에 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처음에 인용한 노래는 내가 남의 부인과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에게도 남자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당시의 일본인들은 성에 대하여 대단히 자유스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식욕과 성욕을 인간의 2대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에 대해서도 식욕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치도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본 농촌의 와카모노구미(若者組)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와카모노구미(若者組)에 관한 내용은 곳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일본 농촌에서는 대개 15세가 되면 소년을 성인 남자로 인정하였으며 이것을 와카슈이리(若衆入り)라고 했다. 성인 남자로 인정되면 토목 공사나 농사일에 나갔을 때 성인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년이 성인 남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들은 성교육,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교에 대한 기능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 날자는 대부분이 와카슈이리(若衆入り)하는 날이었으나 신사나 절에서 祭祀가 있는 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과부 처녀 尼僧 등 여러 경우가 있었다. 교육 장소는 대개 마을에 있는 신사 사원 암자 등이었으며 대상자들과 동수의 여자들을 저녁에 이런 곳에 모아 체비뽑기로 짝을 맞추어 여자가 적극적으로 체험을 통하여 성교육을 시켰다. 와카슈이리(若衆入り)를 마친 청년은 농촌이나 부락을 단위로 구성된 마을 청년들의 모임인 와카모노구미(若者組)에 가입하게 된다. 이들은 밤에는 청년 숙식소인 네야(寢屋)에 모여 연장자로부터 농사일이나 성지식 등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같은 취지로 결성된 소녀 조직인 무스메구미(娘組)를 방문해서 서로 혼인에 대비한 준비 훈련을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스런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농촌에는 옛날부터 부락 등을 단위로 하여 와카모노구미(若者組)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으며 와카슈나카마(若衆仲間), 와카렌쥬(若連中), 와카테구미(若手組) 등으로도 불렸다. 열다섯에서 열 일곱 살 정도의 성인식을 마친 사람들이 통례이고 결혼과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 경우가 많았다. 와카모노구미(若者組)의 업무는 村이나 부락의 경비 소방 풍기 혼인 등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청년은 네야(寢屋)에 밤일을 하기 위해 모여 연장자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기술에서부터 성지식 성기술을 배우고 밤일이 끝나면 무스메야도(娘宿)를 방문하거나 무스메야도(娘宿)가 없는 곳에서는 처녀가 있는 집에 요바이(夜這い)이하 「요바이」로 약기)를 가거나 했다. 무스메구미(娘組)는 와카모노구미(若者組)에 대응하는 것으로 무스메나카마(娘仲間) 오나고와카슈(おなご若衆) 오나고구미(おなご組) 등으로 불렸다. 村별로 또는 부락별로 독립되어 있었고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십 오륙 세였다. 지방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여 밤일을 하고 거기서 자거나 했다. 젊은 남성이 그 곳을 방문하는 중에 이성관도 깊어지고 혼인을 위한 훈련도 쌓여졌다. 무스메구미(娘組)의 기능은 주로 혼인에 대한 훈련과 통제에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프리섹스 상황이 있었다. 처녀들은 요바이를 오는 청년의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부모는 요바이를 오는 청년이 적으면 상심했다.<sup>14)</sup>

이와 같이 농촌에서는 성년식을 마치면 네야(寢宿)를 중심으로 하여 성교육이 행하여지고 또 그것이 실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성교섭은 처녀성을 요구하는 정조관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와카모노구미(若者組)와 무스메구미(娘組)가 서로 대등하게 성을 공유하였던 것이다.

한편 처녀의 경우에는 첫 월경이 있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처녀의 모친이 밭을 만만 마을 사람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서 성교육을 부탁하였는데,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마을의 長老나 一族의 아저씨 등에게 모친이 딸을 데리고 갔는데, 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점심때가 지나서 가는 마을이 많았다. 이 때에 역시 쌀 한 되와 술 한 되를 지참하는 일이 많았다. 그 집에서는 처녀의 모친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처녀를 잠자리에 데리고 가서 성교를 하여 가르친다. 그녀가 돌아갈 때에는 출혈이 묻은 종이나 白布를 주어서 돌려보낸다. 혹은 처녀의 모친이 데리러 오는 마을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初交가 끝나고 어엿한 여자가 된 것이므로 젊은이들이 요바이하러 온다.<sup>15)</sup>

다음으로 요바이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요바이란 밤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 성행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古代의 결혼 제도인 요바우(よばう)의 잔존물이라고 생각된다. 요바이의 내용은 각 마을에 따라서 달랐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먼저 요바이를 할 수 있는 남자 측을 보면 그 마을 사람으로 한정되는 곳이 일반적이었고 요바이의 대상으로는 처녀, 과부 등과 같은 독신 여성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마을 여자이면 처녀나 과부는 물론이고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까지 허용되는 마을도 있었다.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자유롭게 요바이하러 갈 수 있는 것은 처녀와 과부였고, 며느리라든가 시어머니와 같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돈벌러 나갔든지 불일이 있어 출타한 경우에 한한다.<sup>16)</sup>

오늘날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徳川 시대에도 요바이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徳川 시대의 법령, 藩法, 郷村의 규약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바이를 금하는 법령을 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요바이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세 戰國시대의 상황은 분명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그 시대에도 요바이가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 山崎正夫 『三島由紀夫における男色と天皇制』(海燕書房, 1978), p.141

15) 赤松啓介, 앞의 책(『夜這いの民俗學』), pp.65-66

16) 赤松啓介, 앞의 책(『非常民の性民俗』), p.145

그 때까지도 요바이는 있었음에 틀림없고 戰國 동란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마을에 보급되었을 것이다. 평시에도 산촌 등에서는 모자나 부녀 그 밖의 근친 성교, 근친결혼이 많았다고 하니, 그러한 돌발적인 장혜<sup>17)</sup>에 대하여 새로운 성민속이 보급된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戰國 亂世 사회가 근세의 요바이 민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德川 시대의 지방 문서를 보면 町나 村의 夜遊び, 요바이 민속에 대한 금지, 그 밖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享保 무렵부터 심해졌다.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그 후 몇 번이고 같은 禁制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중략) 大正末 무렵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남아 있었고, 昭和 天皇의 즉위식 무렵 郡교육회 등이 편집 발행한 郡誌 町村誌에서는 요바이 민속을 보고하거나, 요바이 민요를 採取하고 있고, 그 무렵에 발행된 민속학 관계의 잡지나 출판물에는 採取의 보고가 많다.<sup>18)</sup>

또한 농촌의 법사회학자인 소가타케시(曾我猛)는 1972년에 시즈오카켄(靜岡縣) 가모군(加茂郡) 미나미이즈초(南伊豆町)에서 「와카슈구미(若衆組) 및 혼인 형태와 촌락 구조」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이 부락에는 언제부터인가는 불분명하지만 요바이의 관행이 있었고 그 유습은 昭和 초기까지 남아 있었다.”<sup>19)</sup> 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성풍속은 德川 막부와 明治 유신 이후의 일본 정부가 순결을 강조하고 정조 관념을 세우려는 일련의 노력을 계속한 결과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江戸 초기에는 이러한 풍속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요바이를 비롯한 일본의 우타가키(歌垣), 농촌의 와카모노구미(若者組) 등 일련의 일본 민속은 江戸初에 다양한 성문화가 형성된 하나의 요인의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결 론

이상으로 옛날의 일본 성풍속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면, 혼인 제도적인 면, 민속적인 면으로부터 고찰해 보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자유로운 성풍속을 조장하고 있었다. 오직 법률만이 여자의 정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극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간통에 대한 형벌을 보면 鎌倉 시대에는 벌금형이었고, 室町 시대에는 간통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부가 공인할 뿐이었으며, 江戸 초기에 들어 와서는 간통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간통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통을 막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일지도 모르지만 각도를 바꾸어 생각하면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실효성이 없

17) 남자가 전쟁에 징집되어 죽거나 하여 남녀의 비율이 맞지 않게 된 것을 가리킴.

18) 赤松啓介, 앞의 책 p.90.

19) 曾我猛 『農村の法社會學』(勁草書房 1996), p.220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徳川 막부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도덕(유교) 신분제도 가족제도 법률을 채택하여 국민 대중에게 강요하였고, 특히 이 시대에는 새로 조직한 세습적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자의 정절과 인종이 강조되었지만, 인위적인 제도나 강요로 오랜 세월 에 걸쳐서 형성된 성풍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江戸 초기에는 일본의 종교적인 요인 혼인 제도적인 요인 민속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옛날부터 형성된 자유스런 성풍속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오랜 전란이 끝나고 경제가 발전하자 江戸 초기 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성풍속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赤松啓介(1994) 『夜這いの民俗學』 明石書店, pp.65-66, p.117  
赤松啓介(2000) 『非常民の性民俗』 明石書店, p.116, p.118, p.145  
明日鐵男(1990) 『日本花街社』 雄山閣  
池田弥三郎(1989) 『性風俗 3』 雄山閣, pp.85-86  
氏家幹人(1998) 『江戸の性風俗』 講談社  
大和岩雄(1993) 『遊女と天皇』 白水社, pp.22-23  
クラウス, F. S (安田一浪譯)(1957), 『日本人の性生活』 河出書房, pp.93-94  
倉地克直(1998) 『性と体の近世史』 東京大學出版部, pp.87-88  
小島憲之外 2人 校註, (1980) 『万葉集(日本古典文學 3,4,5)』 小學館  
佐伯順子(1996) 『「戀愛」の前近代. 近代. 脱近代』 岩波書店, p.171  
笹間良彦 (1998) 『図録性の日本史』 雄山閣出版社  
曾我猛(1996) 『農村の法社會學』 勁草書房, p.230  
暉峻康隆(1989) 『日本人の性と愛』 岩波書店 p.2, p.90  
暉俊康隆外 1人 校註, (1980) 『好色一代男(日本古典文學 38)』 小學館, p.132, p.161  
中江克巳(1995) 『性の日本史』 河出文庫  
中野榮三(1959) 『江戸の岡場所』 雄山閣  
中野榮三(1998) 『遊女の生活』 雄山閣  
西島實(1969) 『江戸時代の性生活』 雄山閣  
西山松之助(1963) 『日本性風俗史』 雄山閣  
野口徳武(1986) 『伝統社會の性』 弘文堂  
花咲一男(1972) 『江戸の出合茶屋』 近世風俗研究會  
ルイス フロイス(1977) 『日本史』 中央公論社, p.27, p.124  
ルイス フロイス(1991) 『ヨーロッパ文化と日本文化』 岩波文庫, pp.50-51  
山崎正夫(1978) 『三島由起夫における男色と天皇』 梅燕書房 p.145

## 要 旨

江戸時代初期には日本全国に公認された遊里や岡場所が多数存在し、都市には今日のラブホテルのような出會い茶屋があった。また小間物店では性行為補助器具を賣っており、性行為補助器具の使用法を詳しく紹介する書籍も出版されるなど、この時代は自由で多様な性風俗があったといえる。

このように江戸初期に性生活が活発であった要因としては、まず宗教的な理由が挙げられる。日本固有の民俗信仰である神道においては性に關する嚴格な戒律は存在せず、仏教もまた僧侶には邪淫戒や女人禁制といった戒律はあったものの一般信者である國民大衆の性愛については一切關与しなかった。むしろ寺院や神社で行なわれる各種の宗教行事が民衆に性行為の機會と場所を提供した。

次に婚姻制度がその理由として挙げられる。日本の婚姻制度は時代とともに妻問婚、婿取婚、娶嫁婚と変遷したが、妻問婚、婿取婚の時代には不倫の概念がなく、かなり自由な性交渉が營まれた。娶嫁婚が一般的になった鎌倉時代以後はじめて不倫が犯罪としてみなされはじめたが、これに對する法律は不完全で、既に形成されていた従來の性風俗の影響を完全に拂拭することはできなかつたと考えられる。

最後に日本の習俗に一種の性解放祝祭である古代の歌垣をはじめ夜間に男が女の家を訪れて性行為を行なう夜這いや年長者から性に關する知識や性のテクニックを習って娘宿に行き性的交渉を持つことのできた若者組などがあつたことも指摘できる。

徳川幕府は新たに組織した世襲的身分制度と家族制度を維持するために女性の貞節と忍従を強調したが宗教的、婚姻制度的、民俗的な要因により古くから形成されていた自由な性風俗が江戸初期には維持されていたので長期にわたる戦亂が終息して經濟が發展すると江戸初期に見られるような自由で多様な性風俗が現わ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性風俗, 好色一代男, 婚姻制度, 夜這い, 雜魚寝, 若者組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1-758) 대전 광역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3 동 402 호

電 話 : 042-523-9753/011-283-3403

e-mail : mhjung@joongbu.ac.kr